목 차

※ 『철학 · 사상 · 문화』의 취지 및 지향점

【논 문】

• 오 흥 명
근원적 자유의 가능성에 대하여 ····· 1

• 남 정 우
칸트의 비판철학에서 미감적 판단력의 질적 계기 ····· 28

• 손 창 선
셸링의 동일성 철학의 융 분석심리학의 유사성 및
셸링 철학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 ····· 50

• 심 지 원
생명윤리에서의 향상(Enhancement)에 대한 윤리적 고찰 ····· 78

• 김 광 명
미완성(논 피니토)의 미학적 의미 ····· 103

• 유 승 종
영지주의와 불교의 상관성 연구 ····· 132

• 하 선 규
사진 혹은 '탈-인간적 이미지'에 함축된 역사철학적 의미
-크라카우어(S. Kracauer)의 문화철학과 사진이론에 대하여 ····· 154

www.kci.go.kr

• 김 윤 재, 박 치 완
바슐라르의 대지의 시학편들에 나타난 상상력의 두 축 ····· 187

• 조 성 식
『文心雕龍』의 '文氣'에 관한 一考察 ····· 218

• 양 진 건, 현 은 선
추사 김정희 제주유배기록에 나타난 화목의 교육적 의미 ····· 244

【부 록】

• 동서사상연구소 연혁 ····· 266

•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270

• 『철학 · 사상 · 문화』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274

• 『철학 · 사상 · 문화』 논문투고규정 ····· 278

• 『철학 · 사상 · 문화』 논문심사규정 ····· 281

www.kci.go.kr

Abstract

On Moment of Quality of Aesthetical Judgement in Kant's Critical Philosophy

Nam, Jung Woo

Disinterestedness in Kant's critical philosophy is served as the qualitative moment that functions as a starting point for the judgement of taste. This moment is an aesthetical attitude of the cognitive subject that is not interested in whether the aesthetical object really is. And through having the attitude the subject can be aware of itself as one and united being of its nature and freedom.

The moment of disinterestedness functions as to justify the subjective-universal claim of the aesthetical judgement in the moment of quantity, the foundation of purposiveness concept in the moment of relation, and the functional basis of sensus communis in the moment of mode. And moreover the moment of quality makes it possible both the judgement of sublimity and the indirect interest that produces genius artwork. In this way the moment of disinterestedness penetrates the aesthetical in general as well as the subjective univers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disinterestedness is a key concept to understand the aesthetical in general in Kant's critical philosophy and to ascertain the meaning of art and it's appreciation.

【Key words】 aesthetical judgement, moments of aesthetical judgment, di sinterestedness, beautiful art, aesthetical idea

* 논문접수일: 2013. 12. 14. 논문심사기간: 2014. 1. 2 ~ 20. 게재확정일 2014. 1. 25.

www.kci.go.kr

셸링의 동일성 철학과 융 분석심리학의 유사성 및 셸링 철학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

손창선*

【요약문】 이 글은 셸링의 동일성의 철학과 융의 분석심리학의 유사성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셸링의 철학과 융의 심리학은 세계와 인간의 정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 핵심 개념들인 '전체성', '역설성', '선험성', '현시로서의 예술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 둘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셸링 철학의 현대 심리학적 재해석 및 치료현장에서의 임상적 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성'은 셸링 철학과 융 심리학의 근본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셸링의 전체 이념과 융의 전체 정신의 의미는 세계와 정신 각각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셸링은 대립되는 양자를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절대적인 이념을 '동일성'으로 상정하였고, 융은 정신에서의 대극을 포괄하는 '전체성'을 제시하여,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에 의해 정신 안의 대극이 합일됨을 보여준다.

'역설성'은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활동하는 내적 모순이 세계와 정신의 본질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셸링의 끊임없는 충돌로서의 '자아'와 '절대이성', 융의 모순으로서의 '자기' 개념이 유사한 역설성을 갖는다.

'선험성'에서는 셸링의 선험철학을 가능하게 하는 '지적 직관'에 의한 주관의 객관 산출과, 융 심리학에서 무의식의 '보상작용'에 의한 개인정신에서의 객관적이고 원형적인 이미지 산출을 비교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현시로서의 예술성'에서는 절대자의 객관적 현시로서의 셸링의 예술과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정신의 작용에 의한 무의식의 현시로서의 융의 예술에 관한 관점을 비교해본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결론에서 셸링의 동일성의 철학과 융의 분석

* 심리연구소 차이와 너머

www.kci.go.kr

심리학의 유사성에 기반 한 심리학적 재해석을 통해, 현대인 특히 현실적 가치에서 의미를 상실한 중년 이후의 우울 및 상실감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위한 인문 치료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주제어】 전체성, 역설성, 선험성, 현시성

1. 서론

필자는 십 여 년 간 임상현장에서 예술심리치료사로 일 해온 사람으로서, 기존의 심리치료 이론들의 철학적 토대를 찾아 심리치료 이론에 학문적 깊이를 더 하고, 임상 적용에서 보다 포괄적인 통찰을 제공할 필요성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함께 연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게 될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셸링(Friedrich W. J. Schelling, 1775~1854)과 카를 구스타브 융(C. G. Jung, 1875~1961)은 이런 연구에 매우 적절한 의미를 제공해줄 수 있는 학자들이다. 대표적인 독일 관념론 철학자 중 한사람인 셸링과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융, 두 사람의 탄생은 꼭 백년의 차이가 나지만, 마치 동시대에 같은 사유를 나눈 사람들처럼 사상의 곳곳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융은 셸링을 카루스(C.G. Carus) 및 쇼펜하우어(Schopenhauer)와 더불어 인간 오성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거부한 '철학의 위험스런 발달을 보상'[1]하는 철학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필자가 보기에 융과 셸링은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철학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다. 말하자면, 융의 심리학은 셸링의 동일성의 철학을 인류의 정신세계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고, 용어 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핵심 개념들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론에서 그들의 사상의 유사성을 정신현상과 실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정신현상에 대해서는 전체성, 선험성, 예술의 현시성의 측면으로, 그리고 실체에 대해서는 역설성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정신현상에 대해서 셸링의 동일성의 철학과 융의 분석심리학은 '전체성'을 통해 이원론을 극복한 것에서 동일하

1)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융 기본 저작집2』, 솔, 서울, 2006, 26쪽.

www.kci.go.kr

다. 대립되는 양자를 어느 하나의 택일 문제가 아니라 '전체인 하나'로 설명하는 셸링의 '동일성'과 그 통일의 원리인 '무차별자', 그리고 융의 '전체정신'과 정신의 대극을 통일시키는 '대극합일'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두 사상의 유사성은 '선험성'에도 있다. 셸링은 그의 선험철학을 주관에서 객관을 직접 산출하는 '자유로운' 활동인 지적 직관을 요청함으로써 완성하였다. 융의 심리학 역시 개인의 경험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원형적 이미지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선험성이 있는데, 그러한 원형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는 모르나 전체 정신을 실현하려는 무의식의 '자율적인' 보상작용을 전제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로, 셸링과 융에 있어서 예술은 상징을 통해 본질을 드러내는 '현시성'에서 유사하다. 셸링은 예술이 객관화된 철학이며, 미적 직관에 의해 절대자, 즉 동일성을 현시한다고 하였다. 무한한 이상성은 '창조적' 힘인 미적 직관에 의해 실재 속으로 들어가 예술 안에서 동일성으로 현시되는 것이다. 융의 예술은 무의식의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작용에 의한 집단적 무의식의 현시다. 상징을 통해 나타나는 내면의 상들은 그 자체로 정신이 전체가 되도록 작용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체에 대해서 두 사상은 '역설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셸링에서는 주관과 객관을 무차별로 포괄하는 '절대이성'의 역설성에 동일성의 본질이 있는 것이며, 융에서는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이고 객체적인 정신을 포괄하는 '자기'의 역설성 속에 본질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역설성의 본질은 어느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닌 언제나 역설을 품는 역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을 갖는 셸링의 철학과 융의 심리학은 둘 다 이해하기에 매우 난해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것은 두 학자의 사상의 전개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다른 시각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눈에 보이는 이원론을 넘어서는 전체성, 경험 외의 영역인 선험성, 보이지 않는 것의 현시성, 불가능할 것 같은 모순을 품는 역설성 등이 모두 그러한 시각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난해함으로 셸링과 융의 사상에 대한 필자의 비교 연구가 기계적인 것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나, 심리치료사로서 임상에 적용하는 심리학 이론의 철학적 토대를 확장하고, 철학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시도에 의미를 두려고 한다.

결론에서는 셸링의 동일성의 철학의 융의 분석심리학과의 유사성에 따른 임상적 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이다.

www.kci.go.kr

2. 본론

1) 선행연구 고찰

셸링과 융을 직접적으로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셸링 철학의 정신분석학적 해석과 융 심리학의 동양철학적 해석을 참조할 수 있었다. 그밖에는 철학상담과 인문치료 영역에서 철학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철학자이자 라캉정신분석학 이론가인 슬라예보 지젝(Slavoj Žižek, 1949년~)은『나눌 수 없는 잔여(The Indivisible Remainder: An Essay on Schelling and Related Matters (1996)』(2010)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셸링의 철학을 라캉의 정신분석학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셸링의 미완성 저작이라는『우주의 역사』의 세 편의 초고를 바탕으로, 셸링이 말하는 우주의 기초인 비이성적 '토대'를 라캉의 '실재계'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포착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현실 바깥에 영원히 남는 '나눌 수 없는 잔여'라는 것이다. 이 비이성적 토대로부터 이성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성은 언제나 완전히 분석할 수 없는 잔여를 남긴다는 것이 지젝의 설명이다.

그런가하면, 이부영은 동양철학인 노자의『도덕경』을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서술한『노자와 융』(2012)에서, 융이 '자기'의 상징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노자의 '도'를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셸링과 융 외의 철학의 상담 및 심리치료적 적용을 연구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박삼열의「사회병리현상으로서의 왕따와 스피노자적 치료」(2013)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병리현상에 대해 기법 위주의 프로그램 대신,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들의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홍경자는「몸철학과 여성주의 철학상담」(2009)에서 몸철학을 중심으로 몸에 근거한 감정을 통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몸의 사유함'에 중심을 둔 여성주의 철학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양철학을 상담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로서,「한국전통사상과 상담문화」(1996)에서 김북호는 이기학설(理氣學說), 수리논리(數理論理) 도식(圖式), 동양 변증법(辨證法)) 이해(理解), 한민족의 인류평화주의 등의 전통 사상 속에서 현대의 상담 문화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다.

www.kci.go.kr

또, 박성희는「Carl Rogers의 현전재성을 구현하는 상담방법으로서 도가의 무위자연에 관한 고찰」(2013)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제안한 현전재성을 도가의 무위자연에 비추어 구체화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상담에 대한 로저스의 기본 철학이 도가의 정신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였고, 현전재성을 무위자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보다 실제적이면서도 세련된 상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불교 '안반수의'의 상담에의 적용 방안 -심리치유 측면을 중심으로-」(2013)에서 김미영은 불교의 안반수의 호흡 수행의 상담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안반수의 호흡 수행을 통한 존재의 직접성 체험이 내담자를 명료한 의식과 현존에 눈을 뜨게 한다는 점, 상담자 또한 같은 효과로 내담자를 맑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현장에 적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철학의 임상적용 가능성은 최근 그 연구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학문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셸링 철학의 임상적 적용가능성은 셸링의 철학과 융의 심리학의 유사성에 기반하며, 그것을 전체성, 선험성, 예술의 현시성, 그리고 실체의 역설성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이다. 셸링과 융은 전체성을 통해 이원론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었고, 셸링의 자유로운 지적 직관의 요청과 융의 무의식의 자율적 보상작용의 전제는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선험적 사유를 제시해주었으며, 쾌감이나 작품성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본질을 현시하는 것으로서 예술의 위상을 높였다고 하겠다. 또한 실체에 관해서는 본질로서의 역설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정된 것이 아닌 역동적인 내용을 품는 철학과 심리학을 보여주었다. 이제 네 가지 유사성을 각각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다.

2) 정신현상에서 대하여 : 전체성, 선험성, 현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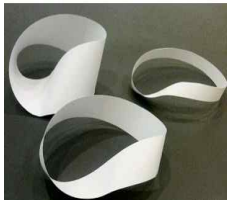
(1) 전체성 : 이원론의 극복

① 셸링의 동일성의 철학 : 전체 이념, 동일성, 무차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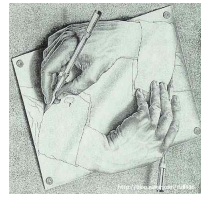
'뫼비우스의 띠'나 '펜로즈의 삼각형', 화가 에셔의 '손을 그리는 손.' 이 이미지들은 대립된다고 생각되는 양자(안과 밖, 그리는 손과 그려지는 손)가 어느 순간 하나가 되거나,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것, 결

www.kci.go.kr

국에는 서로 무한히 자리바꿈하는 것과 같은 기묘한 현상을 보여준다.


뫼비우스의 띠


펜로즈 삼각형


손을 그리는 손(에서)

기묘함은 한 순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머리가 알고 있는 것을 눈이 부정하게 만든다. 즉,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과 밖이 하나일 수 없는데 눈앞에서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주체와 그려지는 대상이 하나일 수 없는데 하나임을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셸링의 동일성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대립되는 양자의 동일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는 철학의 오래된 이원론인 관념과 실재, 주관과 객관, 무한과 유한 등의 대립되는 두 항의 문제를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인가 하는 선택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우선 안과 밖이 서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 즉 안이 있어야 밖이 있고, 밖이 있으니까 안이 있는 상호전제 관계임을 분명히 한다.

동시에 그는 안이면서 밖인, 관념적이면서 실재적인,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무한하면서도 유한한, 즉, 양자를 포괄하는 근원적인 일치와 그러한 일치를 가져오는 '전체(wholeness)'로서의 '절대적인(absolutely)' 지점을 필요로 한다. 그는 여기에 개별적인 대립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동일성(identity)'을 본질로 상정함으로써,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보는 동일성의 철학을 정초한다.

셸링은 '개별적인 부분들은 단지 전체의 이념을 통해서만 가능'[2]하고, 이 전체 이념으로부터 어떤 다른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무한히 긍정되는 것은 오직 '신'뿐이라고 하였다. 셸링에 의하면, 신은 '신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긍정(Affirmation)'[3]이고, '신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4]이다. 신은 자신을 스스로 무한히 긍정하고, 다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긍정되는 유일한 자인 것이다.

이런 신의 정의 안에서는 주체와 대상, 능동과 수동이 동일한 신 자체

2)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 『예술철학』,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1, 11쪽.
3) 위의 책, 45쪽.
4) 위의 책, 46쪽.

www.kci.go.kr

에서 동시에 가능해지는 '동일성(identity)' 안에 있게 된다. 말하자면 신은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긍정함으로써, 대상으로서 수동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신이 스스로를 최소한 매개적으로만 긍정할 수 있거나, 다른 무엇으로부터 수동적으로 긍정되어야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신의 외부에 보다 더 신적인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전체 이념으로서의 신은 '절대적인 동일성의 법칙'으로만 정의되어야 한다.

셸링에 의하면, 신은 또한 스스로 긍정하고, 긍정됨으로써, '이 둘의 무차별자로서 자신을 파악'[5]한다. 무차별(indifferent)은 대립하는 양자의 종합의 원리로서, 말 그대로 차별성이 없는 완전한 종합 또는 상호침투이자, 대립을 모두 폐기하는 것으로, 무차별자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동일하게 크면서 작다'[6]. 이 원리에 의해서 모든 차이들은 '개별적 존재의 고려에서 사유되는 것'[7]일뿐 본질인 전체 이념, 절대적 동일성, 신의 원리에서는 사유될 수 없다.

관념과 실재라는 대립항 역시 전체이념 안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며, 신은 관념적이면서, 그 자신의 이념으로부터 무한히 실재적인 것이다. 따라서 신은 관념성(Idealitat)으로 묘사될 수도 있고, 실재성(Realitat)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

이것이 관념론과 실재론의 이원론을 넘어서 양자의 무차별자인 전체이념 안에서의 관념과 실재의 본질적 관계이다. 여기에서는 '이념적(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실재적)인 것의 절대적 무차별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그 자체로 없다'[8]

다만, 우리가 인식의 최저단계에서 최초의 현존(priminum Existens)인 질료[9]를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질료 일반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점차 '인식의 최고의 단계 혹은 순수한 사변적 인식의 단계'에서는 '절대적 동일성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한하게 인식'[10]한다는 것에서 실재와 관념의 현실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셸링에 의하면, 관념과 실재 같은 대립항의 차이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개별로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과

---

5) 위의 책, 46쪽.
6) 위의 책, 133쪽.
7) 프리드리히 셸링, 권기환 옮김,『나의 철학체계의 서술』, 누멘, 서울, 2010, 50쪽.
8) 프리드리히 셸링, 권기환 옮김,『나의 철학체계의 서술』, 누멘, 서울, 2010, 83쪽.
9) 위의 책, 83쪽.
10) 위의 책, 83쪽.

www.kci.go.kr

달리 이 절대적 동일성은 모든 것의 본질로서 분할될 수 없으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자체'로, '모든 것으로서 존재'[11]한다. 즉,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본질, 하나의 절대적 실재는 절대적 동일성이자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있는 '절대적 총체성(Totalitat)'[12]이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면서 하나인 것과 같다.

영원히 대립할 것만 같았던 안과 밖이 뫼비우스의 띠나 펜로즈의 삼각형에서 동일한 면이었던 것처럼, 절대적 동일성이라는 셸링의 전체 이념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립항들은 하나의 동일한 것이며, 전체이념은 대립되는 양자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즉, 이것이면서 저것인 셈이다.

② 융의 전체성의 심리학 : 전체 정신, 단일성, 대극합일

셸링이 대립 항의 양자를 포괄하는 본질인 절대적 동일성을 전체 이념으로 상정한 것처럼, 융은 정신에서 대립되는 양자로 취급되었던 의식과 무의식에 포괄적인 시야를 제공하는 정신의 '전체성(wholeness)'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에 도입한다.

융의 전체성의 심리학이 있기 전까지 심리학은 의식과 무의식의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분트(Wilhelm Wundt, 1832~1920)는 '모든 정신적인 것은 의식적인 것'이라는 전제 하에 무의식 자체를 외면하였고, 구스타브 페히너[13], 조지 헨리 루이스[14], 윌리엄 제임스[15], 프로이트[16]는 무

11) 위의 책, 49쪽.

12)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예술철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서울, 48쪽.

13) 구스타브 페히너(Gustav Fechner, 1801~1889)는『정신물리학의 기초(Elements of Psychophysics』(1860)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의 감각, 표상과 같은 정신물리적 활동이 지속한다고 보았다.

14) 조지 헨리 루이스(George Henry Lewes, 1817~1878)도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다른 때는 무의식적으로 진행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는 같은 행동이다"(The Physical Basis of Mind, London, 1877, 377쪽)라며, 의식과 닮은 혹은 동일한 것으로서의 무의식을 인정하였다.

15) 실험심리학에서 종교심리학으로 관심을 돌린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그의 저서『종교적 경험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1902)에서 1886년에 마이어스(Frederic W. H. Myers, 1843~1901)에 의해 정립된 개념인 '잠재의식subliminal consciousness' 을 사용하여 그것은 "한계 밖에, 그리고 전적으로 일차적 의식의 외부에 있는 것이지만, 일종의 의식적 사실들로 분류되어야 하며 명백한 표시들로 그것들의 존재를 밝힐 수 있다"(윌리엄 제임스, 309,310)고 설명하며, 다양한 종교심리학적 경험들이 나오는 장소로서 이해했다.

www.kci.go.kr

의식을 의식에 대립되는 항, 즉 의식의 문턱 아래에 있는 부속물로 이해했다. 이에 비해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 1851~1914)는 무의식을 '우리 안에 현존하거나 현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진행되는 것'[17]으로 이해하며, 의식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무의식 개념을 벗어났으며, 이런 개념은 융에 의해 확장된다.

융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이미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체로 태어나며, 분석이나 정신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전체성을 겨냥하는 '정신 종합'이다. 그것은 한 개인이 별개의 분할이 불가능한 통일체 또는 전체가 되는 과정인 것이다.

융이 말하는 정신의 전체(全體)란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는 것인데, 전체 정신은 의식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자체의 목적에 의하여 의식에 작용하고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의 전체가 되도록 자극한다.

정신 치료의 과정에서 의식 외에 다른 속성들이 탐구됨으로써 '인간 본성의 심연에 있는 대극성과 직면'[18]하게 되는데, 그러한 대극은 문명화된 의식의 분리기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융은 '대극성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전체성을 경험할 수 없다'[19]고 하였다.

그러나 전체성에 의해 본래 대극은 하나였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를 추구하며, 한편으로 서로를 전제로 한다. 융은, '선과 악은 결국 행동이 관념적으로 연장되고 추상화된 것일 뿐 양자 모두 삶의 밝고 어두운 현상에 속하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 없는 어떠한 선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떠한 악도 없다.'[20]고 하였다. 이것은 셸링에서 대립되는 양자가 상호전제성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

16) 무의식의 개념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 1939)에게서 의식에 의해 억압된 것으로 확실히 정립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경험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면서, 신경증 증상학의 측면에서 꿈이 무의식적 내용을 매개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 무의식적 내용들은 도덕적으로 양립될 수 없어서 개인적 의식에서 '억압된' 내용들로서, 이전에는 의식되었으나 상실된 요소들이다. 특히 그는 성적인 억압을 무의식의 주요 내용들로 보았으며, 집단적이고 원초적인 내용의 무의식들 역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식의 억압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17)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원형과 무의식」,『융 기본 저작집2』, 솔, 서울, 2006, 22쪽.

18)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융 기본 저작집5』, 솔, 서울, 2002, 30쪽.

19) 위의 책, 31쪽.

20) 위의 책, 45쪽.

www.kci.go.kr

융에 의하면 정신 안에서 이 대극은 전체정신의 중심에 의해 합일된다. 즉,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하나인 그의 전부', 그의 정신의 전체를 관통하는 '자기(自己, Selbst)'가 대극의 합일(合一, Gegensatzvereinigung)로서 양자를 포괄하는 것이다.

자기는 '단일성(Einheit)'[21]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극은 지양된다. 선과 악이 하나의 본질의 다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 안의 모든 대극은 서로를 전제하며 존재할 뿐 본질은 하나인 '동일성'을 갖는 것이다.

융이 말하는 자기는 대극 합일의 화신으로서, '자아이면서 비-자아,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고,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22]이며, '일회적인 것을 영원한 것과 결합시키고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과 결합'[23]시켜 하나로 있는, 즉 셸링의 동일성 그 자체다.

또한 자기는 '하나의 세계(eine Welt)'[24]로 세계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융의 전체성의 개념이 있기 전에는 인간의 정신, 특히 무의식은 개인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융은 무의식은 개인적이고 특수한 부분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개인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이고 시대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무의식의 원형을 발견하였다. 융은 이 발견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무의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획득물이나 부속물 이외의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것 같다..... 이것은 잠재기억의 유무에 관계없이 한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 생동적 작용을 발휘하는 순수하고도 올바른 원시적 신상(神像, Gottesbild)이며.... 이 상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듯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집단적인 상(像, Bild)이다..... 이 역사적이고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상은 자연 그대로의 정신 기능에 의하여 다시금 나타나게 된 것..... 이 집단적 심상은 다시 살아난 원형(Archetypus)이다..... 원형은 이 옛 상들을 다시 산출하는 꿈의 원시적이고 유추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유전된 표상이 아니고 유전된 궤도

21) 위의 책, 38쪽.
22)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인격과 전이」,『융 기본 저작집3』, 솔, 서울, 2004, 287쪽.
23)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융 기본 저작집5』, 솔, 서울, 2002, 30쪽.
24)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원형과 무의식」,『융 기본 저작집2』, 솔, 서울, 2006, 129쪽.

www.kci.go.kr

> 들이다. 이런 사실로 보아 우리는 무의식이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비개인적인 것, 유전된 범주나 원형의 형태로 집단적인 것을 내포한다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무의식이 보다 깊은 층에 상대적으로 생동하는 집단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제창했다. 그래서 집단적 무의식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25)

융의 집단적 무의식에 의해 개인의 정신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정신을 총체적으로 담는 것이 되었고, 따라서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는 인류의 정신이 모든 개별적인 정신에 깃들어 있는 '총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셸링의 전체 이념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립항들을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보는 동일성과, 그러한 동일성이 총체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했던 것처럼, 정신의 대극성은 융의 전체정신에 의해 하나의 동일성을 획득하고, 그러한 전체정신은 인류의 정신으로서 총체적으로 개별 정신 안에 깃들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선험성 : 자유로운 지적 직관과 자율적인 보상작용

① 셸링의 선험철학을 위해 요청된 '자유로운' 지적 직관

셸링의 선험철학은 철학에서의 이원론을 종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는 모든 '지식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일치'26)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이 일치점을 설명하는 것을 자신의 철학적 과제로 삼았다.

지식에서 외부에 객관적으로 있는 사물들이 우리의 주관의 의식 속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있어, 셸링은 양자의 막연한 관련성이나 양자를 초월한 기원적인 원인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객관과 주관을 직접적으로 중재하는 어떤 것을 지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데, 이것은 매개된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했다. 그는 이 자유로운 지식을 '직접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전제하였고, 이 전제만이 주관과 객관의 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다른 모든 확실한 것이 그것에 의해 매개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27)이 그의

---

25)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인격과 전이」,『융 기본 저작집3』, 솔, 서울, 2004, 30~31쪽.

26)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선험적 관념론의 체계』,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0, 27쪽.

www.kci.go.kr

선험철학의 원리가 되었고, 이 확실한 것으로부터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을 밝혀내는 일이 그의 선험철학의 과제였다.

셸링에 의하면 모든 철학의 근본오류는 '기원'이 되는 절대적 동일성을 존재 밖에서 찾는 데에 있다. 그는 스피노자의 존재의 철학에 동의하며, 동일성을 기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의 형식 아래에서 직접적으로 존재에 의해서 정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절대적 동일성이라는 것은 '나타남(das Heraustreten)이기를 멈추지 않'으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고려'[28]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으로서의 그의 선험철학의 원리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나타나고 있는 절대적 동일성이어야 하며, 이것은 '존재와 형식 자체의 절대적 동시성의 성격'[29]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즉, 존재와 형식이 서로를 전제하면서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형식이면서 동시에 존재인 원리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형식과 존재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야만 한다. 양자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임을 뜻한다. 대립되는 양자로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이 아니며, 결국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지식이 바로 다른 매개 없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이 절대적 확실성에 의해 매개되어 동일한 것이 된다.

자신과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은, 자기가 스스로를 객체로 만들고 그것이 자기임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즉, 자신인 주관이 대상인 객관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려면, 그 객관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서 산출된 객관'이어야 함이 '요청'되는 것이다.

다른 매개 없이, 스스로 객관을 산출하는 능력을 통해 주관과 객관을 무차별적으로 동시에 포괄하는 것, 셸링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지적 직관(intellektuelle Anschauung)'[30]이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지식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만 성립한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감성적 직관만을 인정하고, 우리는 '경험적인 나'만을 '대상적인 나'로 인식한다고 보며, 지적 직관의 개념을 부정하

27) 위의 책, 38쪽.
28) 프리드리히 셸링, 권기환 옮김,『나의 철학체계의 서술』, 누멘, 서울, 2010, 39쪽.
29) 위의 책, 40쪽.
30)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선험적 관념론의 체계』,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0, 75쪽.

www.kci.go.kr

였다. 즉, 칸트는 자아 스스로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자기의식은 규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현존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경험적 사유작용들을 수행하고 있는 자아의 현존에 대한 지각이다.'[31]

반면, 셸링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경험 외의 지적 직관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여기에서 그의 선험철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는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유로운 지식으로서 직관, 즉 객관을 산출하는 지적 직관의 선험성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그의 '선험철학은 현존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행위 함에서 출발하며, 그런 행위 함은 오직 요청될 수 있을 뿐'[32]이었던 것이다. 셸링의 자아는 '사태도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한 표상이거나 사유가 아니라 행위(Handlung)'이다.[33] 그리고 자유롭게 행위 함이란 다른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적으로 객관을 산출하는 지적 직관 활동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셸링에게 '지적 직관은 모든 선험적 사유의 기관'[34]이다. 이 지적 직관을 통해서만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는 동일성의 철학을 완성할 수 있으며, 그의 '선험적 사유 방식은 원리를 성립하게 만드는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서만'[35]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원형적 심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제된 융의 무의식의 '자율적인' 보상작용

셸링의 선험철학이 경험 외의 지적 직관의 요청을 통해 성립한다면, 융 심리학에서의 선험성은 무의식이 자율적으로 개인의 경험 이외의 원형적이고 집단적인 이미지들을 내보냄으로써 정신에 보상작용을 한다는 전제에 의해 성립한다.

융의 전체 정신에서 무의식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 내용과 구별되지 않는' 것, 즉 의식의 부속물 내지 잔여물이고, '다른 한편으

31) 남정우,「칸트의 선험론적 자기의식에 대한 비판적 수용 - 피히테와 셸링의 경우 -」,『철학·사상·문화』,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제9호, 2010, 28쪽.
32)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선험적 관념론의 체계』,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0, 76쪽.
33) 남정우,「칸트의 선험론적 자기의식에 대한 비판적 수용 - 피히테와 셸링의 경우 -」,『철학·사상·문화』,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제9호, 2010, 43쪽.
34)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선험적 관념론의 체계』,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0, 75쪽.
35) 위의 책, 77쪽.

www.kci.go.kr

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질을 지닌'[36]것으로 정의된다. 즉, 융은 개인의 의식에서 억압된 것과는 다른, 예컨대 고태적, 신화적 성격을 띠는 것들을 집단적 무의식으로서 무의식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에서 '고대의, 혹은 원초적 유형, 즉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적 상(像)'[37]을 뜻하는 원형에 대해, 융은 생리학의 '문턱' 개념[38], 정신병리학의 '해리' 개념[39], 진화론의 '획득 형질 이론'[40] 등에서 얻은 실마리들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원형적이고 고태적인 심혼 그 자체는 생리적 화학현상으로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각인된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원형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융은 불가해한 원형적 내용을 포함하는 인간 정신 즉, 심혼을 생명 그 자체의 고유한 법칙성을 가지는 자연 요인으로 보며, 자연법칙의 통계적 질서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한 이미지들은 어디서 오는지, 어떠한 경로로 우리의 정신에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의 정신 안에서, 즉 주관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주관 밖의,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원형적 이미지들을 직접 산출한다는 것이다.

융은 꿈과 적극적 명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식에 나타나는 객관적이고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경험하는 현상을 '무의식적 형이상학 같은 것'[41]이라며, 이러한 꿈들이 미치는 작용을 중요시했다. '이 꿈의 상은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

36) C.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융 기본 저작집2』, 솔, 2006, 44쪽.

37) 위의 책, 107쪽.

38) 감각능력의 범위를 측정하는 감각기능 생리학의 '문턱Schwelle' 개념은 융에게 의식에 대해서도 하위뿐만 아니라 상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39) 정신병리학에서의 '해리' 개념은 무의식이 어떤 경우에는 억압을 통해서, 또 다른 경우에는 자아의식의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길 수도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즉, 인류의 태고적 경험은 동일한 개체 속의 다수의 영혼에 작은 부분들로 해리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개인의 경험에서 이전에 한 번도 의식된 일이 없었기에 무의식으로 있게 된 것이다.

40) 융은 이 태고적 경험이 획득형질 이론에 의해 본능으로 습득되고, 인류의 다음 세대들로 직접이 아니라 하나의 궤도로서 유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1)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정신요법의 기본문제」,『융 기본 저작집1』솔, 서울, 2003, 47쪽.

www.kci.go.kr

것은.....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42] 중요한 것은 꿈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실재적인 것'[43]이라는 점이다.

융에 의하면, '꿈은 무의식적 심리 활동의 직접 표현'[44]이다. 그는 꿈을 종전의 인과론적이 아닌 목적론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꿈이 의식에 대해 '보상 작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상작용은 무의식이 '자율적으로 정신기능을 조절하여 전체정신을 실현'시키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를 '무의식에 있는 조절자, 질서와 지남력(指南力, orientation)의 원형'[45]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융에게 꿈의 해석은 감춰진 의미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체험'[46]이며, 창조적 과정을 통해 꿈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꿈을 통해 나타난 무의식의 보상작용은 꿈의 분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47]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꿈의 상징성은, 의식 속에서 아직 인식되지 못한, 개념적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내용의 표현이며, 의식에 대한 보상 기능에 의해 의식의 변화에 따라 꿈의 내용도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은 고정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의식에 낯선 이미지들, 즉 객체적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융에 의하면, 상징은 '인식하기 어려운, 미지의, 궁극적으로 결코 완전히 가늠할 수 없는 크기를 가리킨다.'[48] 상징을 해석할 때에는 꿈 꾼 이의 의식 상황에 관련되는 개인적인 의미와 더불어 비교신화학적, 민속학적, 종교적 및 언어사적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의미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융은 꿈에 나타나는 원형적이고 신화적인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꿈의 상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연상에 인류의 보편적 연상을 더해 그 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확충amplification의 방법을 통해서만 그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다.

---

42) 위의 책, 48쪽.
43) 위의 책, 49쪽.
44) 위의 책, 122쪽.
45)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파주, 2003, 56쪽.
46)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2003, 193쪽.
47)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융 기본 저작집 1』, 솔, 서울, 2003, 133쪽.
48) 위의 책, 143쪽.

www.kci.go.kr

꿈에 나타나는 원형적이고 신화적인 이미지들은 인간의 무의식에 내재하는 본연의 구성요소로, 개인적인 자아의식과는 전혀 다른 '나' 안에 들어있는 타자, 하나의 객체정신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의 의식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작용이라는 전제에 따라 개인적 주관적인 경험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을 꿈을 통해 산출함으로써 정신의 전체성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이다.

셸링의 선험철학은 다른 매개 없이 스스로 객관을 산출하는 자유로운 활동인 지적 직관에 의해 가능했다. 또 융에 의해 원형적 이미지들은 무의식의 자율적인 보상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셸링과 융 모두 선험적 사유를 위해 자유로운 활동을 필요로 했으며, 선험성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활동의 요청과 전제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3) 예술의 현시성 : 상징을 통한 본질의 현시

① 셸링의 예술 : 절대자의 현시

셸링에게 예술은 감각에 쾌감을 주는 미적인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이념을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예술은 철학이 관념적으로 드러내는 절대자를 실재적으로 드러내는 객관화된 철학이다.

그는 '철학이 절대자를 원상(Urbild)에서 표현한다면 예술은 절대자를 모상(Gegenbild)에서 표현'[49]한다며, 철학적 진리와 예술적 미, 이 둘은 '하나의 절대적인 것을 각기 다른 두 가지 관찰 방식으로 본 것[50]'이라고 하였다.

예술에 의해 절대자는 특수자 안에서 실재로 직관되며, 절대자의 유출로서의 예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술은 동일성의 표현 그 자체로서 무한과 유한, 추상과 구체, 보편과 특수, 자유와 필연, 의식 있는 활동과 의식 없는 활동 등의 일치, 상호침투, 즉 양자의 무차별자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다. 한 폭의 그림은 무한한 것을 유한한 재료에 담은 것으로서, 셸링은 '형태는 본질과 함께, 또 본질을 통해서 존재'하고, 본질은 형태 속에서 '자신의 현존재를 내적으로 완결된 것으로 지각'[51]한다고 하였다.

---

49)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 『예술철학』,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1, 36쪽.
50) 위의 책, 37쪽
51) 프리드리히 셸링, 심철민 옮김, 『조형미술과 자연의 관계』, 책세상, 서울 2002, 29쪽.

www.kci.go.kr

예술에 있어서 대립되는 양자의 종합, 무차별자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미적 직관(Ästhetische Anschauung)'이다. 미적 직관은 '객관화된 지적 직관으로서, 반성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 동일성을, 분리된 이전의 것으로 파악하는 능력'[52]을 뜻한다.

미적 직관에 의해 무한한 이상성이 예술에서 실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힘을 셸링은 '구상력(Einbildungskraft)'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상성과 실재성을 '하나로 만드는 힘(die Kraft der Ineinsbildung)'이며, '개체화하는 힘', '진정 창조적인 힘'[53]이다.

이러한 미적 직관의 창조적인 힘은 예술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도식과 비유로 대비되어 나타날 수 있다. 도식주의(Schematismus)는 '특수자가 보편자를 통해서 직관되는 표현', 다시 말해 유한자의 무한자로의 구상이다. 이에 비해 비유(allegrisch)는 '보편자가 특수자를 통해서 직관되는 표현'으로 무한자의 유한자로의 구상이다. 그리고 이 양자를 종합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das Symbolische)'[54]이다. 따라서 예술은 바로 상징을 통해 절대자를 현시하는 것이다.

셸링은 도식과 비유의 차이로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구분하기도 한다. 비유 즉, '무한자의 유한자로의 구상은 예술 작품에서 특히 숭고함으로 표현되며', 도식 즉, '유한자의 무한자 안으로의 구상은 예술 작품에서 특히 아름다움으로 표현된다'[55]는 것이다. 그의 예술철학에서 숭고함과 아름다움 사이에는 어떤 질적이고 본질적인 대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징성 안에서 양적인 차이만 존재한다. 보편자와 무한자의 특수자와 유한자로의 하강은 숭고하고, 반대로 특수자와 유한자의 상승은 아름다운 것이다.

예술 장르별로는 보다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을 품는 것은 조소적 예술이고, 이상적 측면을 품는 것은 시적인 예술 혹은 말로 하는 언어예술이다.

어쨌든 셸링에서의 예술의 최상의 표현은 자유를 굴복시키지 않으면서 필연성이 승리하고, 필연성을 없애 버리지 않으면서 자유가 성취되는 것을 표현하는, 양자의 동일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천재는 스스로 이미 이념의 보편과 개체의 특수를 하나로 동일하게 정립하는 자'[56]이다. 그는 '신의 유

52) 권기환,「셸링에 있어서 예술과 미-『예술철학』의 §15-§24를 중심으로」,『철학·문화·사상』,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제8호, 2009, 134쪽.
53)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예술철학』,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1, 60쪽.
54) 위의 책, 75쪽.
55)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예술철학』,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1, 94쪽.

www.kci.go.kr

한화를 다시 무한성으로 복귀시키면서, 신의 이념에 자신의 이념을 접근'[57] 시킨다.

② 융의 예술 : 무의식의 현시

셸링이 예술을 절대자의 현시, 즉 동일성의 객관적 표현이라고 보았다면, 융은 집단적 무의식의 현시로 보았다.

개인의 의식에서 억압된 것과는 다른 이 집단적 무의식은 그 무엇보다 상징을 통해 작품세계 속에 모습을 드러내며, 융의 심리학은 바로 이 상징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예술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임상적 예술이나 예술가들의 예술에 대한 융의 관심은 창작과정과 작품의 '상징성'에 있었는데, 상징이란 언어로는 아직 남김없이 이해할 수 없는 관점을 표현한 것으로서, 융은 예술에서 정감적 상징적 현상만을 심리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신치료의 과정에서 꿈이나 환상에서 본 집단적 무의식의 이미지들을 실제로 그려보라고 권한다. 내면에 있는 상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미치는 살아 있는 작용을 다루고 있는 것'[58]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치료적 발전 단계에서의 그림의 구체적 형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하면, 무의식 과정의 자연 발생적인 이미지들이 표현되는데, '처음에 혼란스럽게 많았던 상들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특정한 모티프와 형식요소들로 압축'[59]된다.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자신의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 바로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자기'라는 '영원한 미지의 타자'를 형상화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만들어낸 '상과 의미는 동일하며, 상이 만들어지면 의미가 분명해진다.'[60]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그림만이 아니라 춤, 연극, 글쓰기 등의 다양한 예술 형태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융의 예술에서의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 양자를 종합하고, 상호침투하게 하

56) 위의 책, 106쪽.
57) 권기환,「셸링에 있어서 예술과 미-『예술철학』의 §15-§24를 중심으로」,『철학·문화·사상』,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제8호, 2009, 141쪽.
58)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정신요법의 기본문제」,『융 기본 저작집 1』, 솔, 서울, 2003, 53쪽.
59) C.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융 기본 저작집2』, 솔, 서울, 2006, 66쪽.
60) 위의 책, 68쪽.

www.kci.go.kr

는 것에 다름 아니다.

셸링의 절대자의 현시로서의 예술이 가능한 것이 미적 직관 때문이라면, 융의 무의식의 현시로서의 예술이 가능한 것은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무의식의 작용 때문이다.

그는 무의식의 상들의 '창조과정은 마치 인간의 마음에 뿌리박은 생명체와 같은 것'[61]으로, 무의식에서 용솟음치는 예술적 창조의 충동에 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살아있는 무의식의 작용은 개인적 무의식보다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는 원형들이 보상작용에 의해 의식 표면에 출현하게 된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형상들을 작품으로 외면화함으로써, 무의식의 내용은 의식 속에 들어서게 되고, 그 의식화됨 자체로 이미 그에게 작용을 하게 된다. 그것은 전체정신이 되도록 합일시키는 작용이다.

셸링이 미적 직관의 힘이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예술을 보다 도식적인 것과 비유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에 비해, 융은 예술작품의 형성과정에 따라 외향적 자세에서 나온 것과 내향적 자세에서 산출된 것으로 구분한다. 즉, 쉴러의 희곡이나 시는 내향적 자세에서, 괴테의 파우스트2부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외향적 자세에서 산출된 것이다.

여기서 내향적 자세라 함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소재가 다루어지고 작품이 형성되는 것으로, 셸링의 표현으로는 특수자가 보편자를 통해서 직관되는 도식에 대응하는 것이다. 외향적 자세라 함은 작가의 의도에 반해서 창조적 관념이 작가로 하여금 옮겨 쓰게 하는 경우로, 보편자가 특수자를 통해서 직관되는 비유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융은 외향적 자세에서 나온 예술작품 속에서 보다 더 집단적 무의식이 현시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를 '높은 의미의 인간(Mensch), 즉 인류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마음을 짊어지고 이에 형상을 부여하는 집단인(Kollective Mensch)'[62]으로 보며, 그들이 표현하는 상들은 바로 시대정신에 부족한 것을 묘사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예술가는 개인적이면서 비개인적이고 창조적인 과정 자체가 되는 것이다.

셸링에게서 최고의 예술을 표현하는 천재가 보편과 특수를 하나로 동일하게 정립하는 자라면, 융이 말하는 천재적 예술가는 집단적 무의식을 작품에 드러내는 '그 시대의 영적 비밀의 본의 아닌 대변인'[63]이다. 예술가는

61)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2003, 303쪽.
62)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2003, 305쪽.
63) 위의 책, 307쪽.

www.kci.go.kr

집단적 무의식을 표현하며 이를 예감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 원형적 상징이 분출하는 예술작품을 창조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시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시대정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일시키는 자라고 하겠다.

예술에서 상징을 통한 본질의 현시는 셸링의 무한한 이상성을 실재로 들어가도록 하는 미적 직관의 창조적 힘, 융의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무의식의 자기전개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3) 실체에 대하여 : 본질로서의 역설성

① 역설로서의 셸링의 '자기의식' 그리고 '절대이성'

셸링은 세계의 일자를 통찰하는 철학자의 지점에 서서 자아와 절대이성의 본질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본질은 기원이 되는 자리에 고정불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절대이성 자체의 역설성과 그 역설성에 의한 끝없는 활동성에 있다.

동일성의 철학에서, 대립되는 양자를 무차별로 포괄하는 신은, 셸리의 저서 System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m(선험적 관념론의 체계)(1800)에서는 자기의식을 지닌 '자아'로, 그리고 Darstellung meines Systems der Philosophie(1801)에서는 '절대이성'으로 표현된다.

『선험적 관념론의 체계』에서, 자아는 주관이면서 객관인 '역설'을 품는 개념이다. 내가 "나"라고 말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부르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에 의해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 자체로는 부를 수 없으며(의식할 수 없으며), 부른다는 것(의식한다는 것)은 이미 타자화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는 자신에게 표상된 것이면서 동시에 표상하는 자이고, 스스로 산출하면서 동시에 산출된 자이다. 스스로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일 뿐 아니라, 자기정립 하면서 반정립하는 활동성이고, 스스로를 제한하면서(무제한) 스스로에게 제한되는(유한한) 활동성이다.

셸링은 자아가 주관이면서 스스로를 객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자아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지적 직관(intellektuelle Anschauung)'때문이라고 본다. 자아는 자기 스스로를 객관으로 만듦으로써, 즉 지적으로 직관함으로써 주관이자 객관이 되는 지점에 놓이는 것이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객체로 만듦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자아 안에는 서로 지양하면서도 상대방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끝없는 다툼, 그로인한 동일성과

www.kci.go.kr

이중성의 끝없는 역설이 있게 된다.

『나의 철학체계의 서술』에서 '절대이성'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양자에 반대해서 하나의 무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64]로 정의된다. 주관과 객관의 무차별자인 이 절대이성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성은 단적으로 절대적 동일성과 일자이고, 자기 자신과도 동일한, 동일성의 법칙인 것이다. 따라서 '이성은 존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본질에 의해서도 절대적 동일성 자체와 하나이다.'[65]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본질에 의하면 주관과 객관은 동일한 것이다. 그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적직관을 통해 이 둘을 무차별로 포괄하는 자기의식을 하는 자아, 절대이성이며, 동일성의 본질은 이 끝없는 역설성에 있는 것이다.

② 역설로서의 융의 '자기(Selbst)'

'절대이성'이 주관이면서 객관인 역설성을 가지고 세계의 일자인 동일성을 통찰한다면, 융의 심리학에서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는 개인의 정신이면서 집단적이고 객체적인 정신이라는 역설성을 가지고 정신의 일자인 전체성을 체험하게 한다.

융은 '자기das Selbst'를 '주관 안의 객관'으로서,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우리 안의 '영원한 미지의 타자''[66]라고 했다. 의식의 중심인 자아가 개인적 경험에 한정되는 정신 영역인 반면, 집단적 무의식을 포함하는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는 인류의 보편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 정신 안에서 주체이면서 객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기를 의식화할수록, 정신에는 작고 개인적인 자아세계로부터 보다 넓은 객체에 참여하는 의식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인류와 하나가 되는 것'[67]으로서, 주체이면서 객체가 되는 것이다.

자기는 인류의 보편 정신인 객체정신을 꿈이나 적극적 명상 속에서 이

64) 프리드리히 셸링, 권기환 옮김, 『나의 철학체계의 서술』, 누멘, 서울 2010, 27쪽.
65) 위의 책, 35쪽.
66)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융 기본 저작집 1』, 솔, 서울, 2003, 54쪽.
67) 위의 책, 86쪽.

www.kci.go.kr

미지로 산출한다. 이것은 개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전히 객체적인 고태적, 원형적 이미지들로 정신의 전체성에 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다. 즉, 개인적 의식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배제하는 것 등에 평형을 가져와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무의식의 의식에 대한 '보상작용' 아래,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들이 꿈이나 적극적 명상을 통해 자의적으로 표출된다.

'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의 표명으로서 의식의 영향에서 배제된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으로 나타나 꿈 꾼 사람의 내적 진실과 현실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68] 마치 내가 "나"라고 말 할 때 내가 나를 부르면서 동시에 나로 불리는 것이 듯이, 나는 꿈을 꾸는 나이면서 동시에 꿈을 바라보는 나인 것이다. 또 꿈을 통해 스스로 내적 진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꿈을 통해 객체정신을 산출하는 자기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불가해하며, 기술 불가능한 원형적 이미지들을 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대적인 역설성으로 남는다. 융은 이러한 점을 '자기(自己)의 이율배반성'[69]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는 '하나의 모순이며, 역설적인 것, 형용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에 관한 표명'[70]이다.

이것은 전체정신이 완전히 해석될 수 없으며,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의식의 보상작용으로서 객체적 이미지를 산출하기 때문에 끝없는 역설로 남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말년에 융이 남긴 자서전에는 이러한 자기의 영원한 역설성이 고스란히 하나의 통찰로 담겨 있다.

> "내가 자기 자신 안에서 아주 좁게 제약되어 있다는 의식만이 무의식의 무한성에 접속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성에서 나는 나를 유한하면서도 영원하며 이것이면서도 저것으로서 경험한다. 내가 나를 개인적인 결합 속에서 궁극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알게 되면서 또한 무한한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닌다."[71]

융은 이러한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에 동화시키는 것만이 전체성을 회복

68) 위의 책, 126쪽.
69)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융 기본 저작집5』, 솔, 서울, 2002, 33쪽.
70)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파주, 2002, 86쪽.
71) C. G. 융, 조성기 옮김,『카를 융: 기억, 꿈, 사상』, 김영사, 서울 2007, 573쪽.

www.kci.go.kr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동화同化라는 말은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 침투를 말하며, 일방적으로 평가, 재해석,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72]라고 하였다. 동화 과정은 양자택일이 아니고, 항상 이것 또는 저것, 이것이면서 저것인 무의식과 의식의 협동 내지는 하나 됨 즉, 동일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주관이면서 객관인 셸링의 '절대이성'과,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이고 원형적인 융의 '자기'는 끊임없이 역동적인 역설을 본질로 품고 있음에 공통점이 있다.

3. 결론

융이 추구한 정신 치료의 목표는 자기(das Selbst)의 실현, 즉 개인의 전체 정신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개성화(Individuation)'였다. 개성화 과정은 정신 안의 대극성을 경험하고, 무의식의 자율적인 보상작용에 스스로를 맡기며, 상징을 통해 드러난 정신의 본질을 이해해 가는 끊임없는 여정이다.

의식의 일방적 적응성, 합리성, 경험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성향들은 융 심리학의 포괄적인 전체성, 선험적인 원형들의 자율적인 보상작용, 예술을 통한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무의식의 현시성,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정신의 본질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치우침이 조절될 수 있었다.

특히 예술심리치료 현장에서 예술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대극이나 대극합일의 이미지, 원형적이고 신화적인 이미지들, 전체의 중심인 자기를 상징하는 이미지들, 어두운 내면인 그림자와 같은 역설의 이미지들은 융의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했으며, 그것을 근거로 치료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필자의 임상 경험에서도 정신의 대립적인 두 성질의 이중성을 담은 가면, 신화적 인물을 닮은 신체화(身體畵), 태아의 모습과 같은 만다라, 언어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 등 정신현상의 전체성, 선험성, 실체의 역설성이 수많은 이미지들로 현시[73]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들의 창작과정 자체가 스스로 전체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더욱 자기 실현의 길목으로 인도하여 내담자 개인의 정신이 보다 원만하고, 전인격화 되어 감을 목격할 수 있었다.

---

72)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정신요법의 기본문제」,『융 기본 저작집 1』, 솔, 서울, 2003, 137쪽.

73) 필자의 예술치료학 석사 논문「통과의례의 예술치료적 적용에 관한 연구」에 수록된 이미지들 참조.

www.kci.go.kr

본론에서 살펴본 바대로, 융의 심리학과 셸링의 동일성의 철학이 갖는 유사성도 치료적 핵심 개념들인 정신현상의 전체성, 선험성, 예술의 현시성과 실체의 역설성의 측면들이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셸링		융	
정신현상	전체성	전체 이념	대립되는 양자를 포괄하는 이념.	전체 정신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는 정신의 전체.
		동일성	개별적인 대립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이념. 절대적 동일성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자체로, 모든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단일성	대극을 품는 전체 정신이 하나의 본질을 갖는다는 것. 인류 전체의 정신이 개별적인 정신 안에 총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무차별자	대립하는 양자의 종합의 원리, 차별성이 없는 완전한 종합 또는 상호침투이자, 대립을 모두 폐기하는 것.	대극합일	정신의 대극적 요소들의 결합, 상호 침투, 양자 모두를 일컬음.
	선험성	지적 직관 활동	선험철학을 위해 요청된 주관 안에서 객관을 산출하는 '자유로운' 능력.	보상작용	전체성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정신 안에 집단적 원형적 상을 산출하는 무의식의 '자율적' 보상작용.
	현시성	절대자의 현시	미적 직관의 '창조적' 힘에 의함. '상징'을 통해 절대자를 현시.	집단적 무의식의 현시	무의식의 '창조적' 자율성에 의한 집단적 무의식의 현시. '상징'을 통해 나타남.
실체	역설성	절대이성	주관이면서 객관, 주관과 객관의 무차별자.	자기	주관 안의 객관, 우리 안의 영원한 미지의 타자. 하나의 모순이며, 역설적인 것, 형용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에 관한 표명.

표1. 셸링과 융의 개념 비교

www.kci.go.kr

이렇게 매우 닮아있는 점들에 비추어보면, 융의 심리학은 인간 정신으로 축소한 철학으로, 셸링의 철학은 자연으로 확대한 심리학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융의 이론에는 많은 철학적 인용과 서술이 담겨있고, 셸링의 철학에는 인간의 정신과 무의식에 대한 언급들이 곳곳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셸링 철학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 역시 바로 이러한 유사성에 기반 하는데, 예술심리치료에서 작품을 통해 정신을 표현하는 과정은 셸링의 용어로는 주관에서 객관을 산출하는 과정이며, 그대로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대립되는 양자의 동일성을 현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역설에 의한 영원한 창작 과정 자체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융의 용어로는 무의식의 자율적인 보상작용에 따라 정신 안의 대극의 합일을 경험하고, 정신의 본질을 탐구해가는 영원한 자기의 실현 과정에 다름 아니다.

또한 셸링의 자연철학이 '자연의 다양하게 얽힌 조각을 풀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것이 현상들로 나타날 때의 혼돈을 해체해 질서 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었던 방법'[74]은 자연의 부분으로서 인간 정신 현상의 얽힌 조각들을 풀어 혼돈을 해체해 질서 정연하게 구분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곧 융이 말하는 전체라는 필연성, 전체라는 질서를 찾아가는 길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유사성에 기반 한 융 심리학의 확대, 자연의 부분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서 셸링 철학의 임상적 적용은 심리치료에 보다 깊이 있고 포괄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 바이다.

74)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예술철학』,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1, 26쪽.

www.kci.go.kr

참고문헌

권기환,「셸링에 있어서 예술과 미 -『예술철학』의 §15-§24를 중심으로」,『철학·사상·문화』,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제8호, 2009.
김미영,「불교 '안반수의'의 상담에의 적용 방안 - 심리치유 측면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제16호, 2013.
김북호,「한국전통사상과 상담문화」,『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진로삼담교사 연수자료집』,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96.
남정우,「칸트의 선험론적 자기의식에 대한 비판적 수용 - 피히테와 셸링의 경우 -」,『철학·사상·문화』, 동서사상연구소, 제9호, 2010.
박삼열,「사회병리현상으로서의 왕따와 스피노자적 치료」,『대동철학』, 대동철학회, 제63집, 2013.
박성희,「Carl Rogers의 현전재성을 구현하는 상담방법으로서 도가의 무위자연에 관한 고찰」,『초등상담연구』,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제12호, 2013.
손창선,「통과의례의 예술치료적 적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슬라예보 지젝, 이재환 옮김,『나눌 수 없는 잔여』, 도서출판b, 2010.
윌리엄 제임스, 김재영 옮김,『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한길사, 파주, 2000.
이부영,『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2003.
_____,『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파주, 2002.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선험적 관념론의 체계』,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0.
_____, 권기환 옮김,『나의 철학체계의 서술』, 누멘, 서울, 2010.
_____, 김혜숙 옮김,『예술철학』,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2011.
_____, 심철민 옮김,『조형미술과 자연의 관계』, 책세상, 서울, 2002.
홍경자,「몸철학과 여성주의 철학상담」,『한국여성철학』, 한국여성철학회, 제12권, 2009.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정신요법의 기본문제」,『융 기본

www.kci.go.kr

저작집1』, 솔, 서울, 2003.
_____,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융 기본 저작집2』, 솔, 서울, 2006.
_____,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인격과 전이」, 『융 기본 저작집3』, 솔, 서울, 2004.
_____,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융 기본 저작집5』, 솔, 서울, 2002.
_____, 조성기 옮김,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김영사, 서울, 2007.

www.kci.go.kr

Abstract

Similarities between Shelling's Identity Philosophy and Analytic Psychology of C. G. Jung, And clinical applicability of Shelling's Philosophy

Son, Chang Sun

This paper aims to explicate the similarities between Schelling's identity philosophy and analytic psychology of C. G. Jung. Schelling's philosophy is similar to Jung's psychology in terms of 'wholeness', 'contradictoriness', 'transcendence', 'manifestation'. I examine the likeness of those two theories and try to provide a clinical application of Schelling's philosophy.

First, concerning 'wholeness', I compare Schelling's idea of absolute identity to Jung's idea of wholeness. Both of them are meant to overcome the dualism. Second, about 'contradictoriness', I take it that both Schelling and Jung regard it as the essence of the world and spirit. Schelling's notion of absolute reason and Jung's notion of self have that character in a similar manner. Third, concerning 'transcendence', I compare Schelling's intellectual intuition with Jung's emergence of archetype image. Schelling demands intellectual intuition to make the subject produce the object. Jung suggests archetype image in dream and active meditation. Finally, Schelling's manifestation of the absolute in arts is comparable to that of collective unconsciousness of Jung.

In conclusion, I suggest a clinical applicability of Schelling's philosophy based on the similarities with analytic psychology of Jung.

【Key words】 wholeness, contradiction, transcendence, manifestation

* 논문접수일: 2013. 12. 14. 논문심사기간: 2014. 1. 2 ~ 20. 게재확정일 2014. 1. 25.

www.kci.go.kr

의료윤리에서의 향상(Enhancement)에 대한 고찰

심지원*

【요약문】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은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죽음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응용영역은 더 이상 병원의 울타리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 기능 또는 외모를 향상시키려는 인간의 욕구나 바람이 의학발전에 힘입어 건강한 인간의 몸에 의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향상의 의미와 동기에 대해 숙고해보고, 의료행위가 건강한 사람의 몸에 개입했을 때 논의되는 윤리적인 문제들과 향상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이다.

【주제어】 향상, 치료, 목적, 방법 및 수단, 자연스러움

* 이화의료윤리센터

www.kci.go.kr